

폭염에 가축 폐사 125만 마리 넘었다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로 폐사한 가축이 125만 마리를 넘어섰다. 피해액은 84억원으로 늘어났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13개 시·도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총 125만2320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 여름 이맘때의 110만5878마리 보다 13.2%, 14만6442마리 늘어난 숫자다.

지난 17일 정부의 공식 발표 당시 79만2777마리였는데 엿새 만에 45만643마리가 더 폐사한 것이다. 그러나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의 피해 신고만 집계된 데다 폭염이 장기화할 것인 예보가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엿새 만에 46만 마리 더 죽어 피해액 두배

현재 5억만 지급...“가축 폐사 더 늘수도”

축종별로는 닭이 117만8482마리로 가장 많이 폐사했다. 오리 4만6000마리, 메추리 2만 마리, 돼지 7838마리도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시·도별로는 전북에서 가축 40만474마리가 폐사해 피해가 가장 컸다. 뒤이어 충남 24만3640마리, 전남 18만1513마리, 경북 17만5876마리, 충북 9만1514마리, 경기 8만9285마리, 경남 3만3324마리 등의 순이다. 현재까지 농작물 피해 신고는 없었다.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보험금 기준)는 84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17일 42억원에서 엿새 만에 두 배 커졌다.

이날 기준 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은 5억원에 그친다. 농식품부는 가축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 가입률은 닭 91.8%, 돼지·오리 각 72.3%, 메추리 44.2%, 소 8.9%다.

보험 미가입 농가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원한다.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를 넘으면 영농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피해율이 50% 이상이면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도 지급한다.

희망농가에 한해 피해 면적 경영비의 최대 2배까지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월 상순까지 폭염이 계속 이어질 것인 예보가 있어 가축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외제차량 구입 사기’ 50대 10년만에 구속

“그급 외제차량을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빼돌리다 발각되자 해외로 도피한 50대가 10년만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3일 고객의 중고차량 구입비 등 4억5000여만원을 중간에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9월 광주 남구 한 타이어 도매상에서 고객 B(62)씨가 고급 외제차량 구입 문의를 하자 저렴하게 살수 있을 것처럼 속여 1억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등 2008년 9월까지 1년여동안 6명으로부터 4억 5000만원을 받은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타이어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5여여명의 채무가 생기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중고차량 사기행각을 벌여 일부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채무가 늘어나자 2008년 10월께 해외로 도주했으며 10여년만인 지난 17일 귀국해 공판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해외도피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고소한 피해자들이 10여명이 넘는 점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대병원 응급실 입구로 승용차량 돌진

광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돌진해 1명이 다쳤다.

23일 오전 7시55분께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응급실 입구로 A(70)씨가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병원 이송단원 B(40)씨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식 치료를 받기 위해 차량을 이용해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동시에 밟은 것 같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PC방서 여종업원 몰래 촬영한 고교생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PC방에서 스마트폰으로 종업원을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모 고등학교 3학년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22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 한 PC방에서 20대 여자 종업원을 뒤따라가 스마트폰으로 신체 일부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일하고 있는 종업원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호기심에 발했었다”는 A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관 매단 채도주 30대 만취운전자 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25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위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박모(53)경위를 차량 운전석 문에 매단 채 5m 가량을 달아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불법 유턴했으며, 과거 3차례 술을 마시고 운전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지수한 이씨는 면허 취소 수자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소 출소 다음날 교회 턴 20대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교도소 출소 직후 교회를 턴 혐의(절도)로 A(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낮 12시30분께 광주 북구 한 교회에 침입해 100만원 상당의 기타 3점을 훔쳐 달아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 혐의로 복역하고 지난 14일 출소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훔친 기타를 교인에게 되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고아원을 전전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특별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생활해왔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기상청 “8월 기온 평년 보다 높고 9월은 비슷”

올 여름 8월까지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이나 9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했다.

23일 기상청은 향후 3개월 전망을 발표하며 “오는 8월과 10월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9월은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예보했다.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인다.

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무더운 날이 많겠으며,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기온 변동성이 크겠다. 대기불안정으로 강한 소나성 강수가 올 때가 있겠고 지역적으로 편차가 클 예정이다.

9월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 지리에 틀다가 점차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다. 기온의 변동성이 크고 일시적으로 저온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다.

10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보이며 월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

월평균 기온은 8월과 10월은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예정이며, 9월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월 강수량은 8~9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며, 10월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가 짧아지면서 무더운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비가 내리기 어려운 조건에 따라 고온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전국 폭염경보 전력수급 정상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절기상 대서인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 로비에 설치된 전력수급현황 모니터에 전력수급 '정상'이 표시되고 있다.

폭염장기화에 소방활동 안전대책 추진...소방관 안전도 강화

소방청, 종합대책 수립

소방청은 23일 폭염으로 인해 인명과 가축 피해가 급증하고 말벌 등 벌집제거 출동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활동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대책은 ▲119구급대 운영 ▲벌집제거, 축산농가 급수지원 등 생활민원 처리 ▲물놀이 사고방지를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강화 ▲현장활동대원 안전관리다.

소방청은 급증하는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 충분한 폭염관련 물품을 확보하고 벌 개체수 증가에 따른 벌집제거 장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가뭄지역 급수지원 시

지역주민에 대한 식수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며 가축폐사 우려 축산농가의 살수지원 요청 역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피서철전기 의용소방대 등 인력을 주말에 집중 배치하고 해경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 해수욕장 안전사고 방지와 사망자 감소를 유도할 예정이다.

폭염에 노출 때 있는 소방대원의 안전도 도모한다.

소방청은 지휘차량내 식염포도당, 정제염 비치 등 필요시 폭염구급차에 배치한다. 장시간 현장 작업시 현장 그늘막, 냉풍기, 얼음물 제공 등을 통해 소방대원 탈수·탈진 방지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내 '무더위 쉼터'를 설치해 노인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공간을 운영한다. 경로당, 독거노인 주거지에는 의용소방대원이 방문해 폭염에 대비한 행동요령과 전기 등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김연상 소방청 119구조과장은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벌 쏘임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폭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폭염특별대책을 강구해 국민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급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이농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